

김동진 교수 민법 중급강의

법학교육의 전통의 강자! 한림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의 새로운 대세! 김동진 민법!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 70%이상의 독보적인 점유율 1위 강사!

▶ **교재의 단순화** : 민법 기본서는 「**민법공방**」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민법 중급강의

■ 강의일정 2019년 7월 1일(월) ~ 8월 9일(금), 오전, 월~금 강의, 총 30회
오전 9:20 ~ 13:00

■ 교 재 **민법공방 제2판**(김동진 편저, 월비스)

■ 문의사항 다음카페 「[변리사 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의특정 ◎ 강의 기간 중 공부 방법 및 강의 진행에 관하여

1. 예 습

「예습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예습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은 강의에 대한 집중력 및 흡수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중급강의는 민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강의이므로 예습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예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기본강의를 수강한 경우 : 2019년 기본강의를 「민법공방 제2판」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기본강의 시간에 밑줄을 그어드린 부분 위주로 속독을 하고 중급강의

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때 밑줄 친 내용 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옆에 샤프 등을 이용하여 「물음표(?)」 표시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그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수강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2019년 이전에 진행된 중급강의를 수강한 경우 : 과거 「민법공방 제1판」으로 저의 중급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민법 공방 제1판에 있는 밑줄을 샤프로 제2판에 옮기면서 일독하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③ 제 강의를 처음 수강하는 경우 : 민법공방으로 이루어진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민법공방 내용을 보시면 기출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위주로 속독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2. 강의 진행

가. 95점 목표

민법 95점은 합격하고도 남을 점수입니다. 민법은 양이 매우 많으므로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면 오히려 지식이 명료하지 못하게 되어 80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급강의의 목표는 95점입니다.

나. 나머지 5점과 채권법 끝까지 날림 없는 강의

변리사 시험에서는 많으면 2문제 정도는 지역권이나 환매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구석진 조문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강의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점 ① : 지역권과 같은 내용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7월에 진행되는 중급강의에서 조문을 설명하였더라도 사실상 대다수가 암기 사항이므로 10월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문제점 ② : 수강생으로서는 당연히 날림이 없으면서 보강도 거의 없이 중급강의를 잘 마무리해주길 원한다. 그런데 총 30회로 진행되는 중급강의에서 지역권이나 환매·교환계약 등을 모두 강의해야 한다면, 정작 중요하고 강의해야 할 내용을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급강의에서는 구석진 조문 내용은 따로 강의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여, 절약된 시간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휘발성이 강한 구석진 조문들만 묶어 2019년 12월 무렵 무료특강(3시간 내외 진행, 실강·인강 모두 무료)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급강의 수강생들은 단순 암기사항에 해당하는 조문들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강의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3. 복습

복습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일 수업시간의 진도 범위만큼 민법공방을 필기노트와 함께 정독하면서 이해를 도모하시면 됩니다.

민법 실력이 좋아서 복습이 빨리 끝나는 분들께서는 종종 「중급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집을 풀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연습을 위해 주어진 문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게 공부된 상태에서 소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버리면 정작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에 본인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정답을 외우고 푼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남는다면, 처음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 지겹지만 참고 속독으로 민법공방을 계속 반복하는 「누적적 복습」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급강의 중에 민법공방을 3회독 이상 한다면, 10월 이후에는 민법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